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위성 3호 탑재체 공모

- 국산 소자·부품 역량을 보유한 국내 산·학·연 대상, 우주검증을 위한 탑재체 공모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026년 1월 7일(수)부터 2월 6일(금) 17시까지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지원 사업」(이하 ‘우주검증 사업’)의 우주검증위성 3호 탑재체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우주검증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 및 반도체 등 연구 성과물의 우주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큐브위성 기반의 검증 플랫폼(12U급, 1U=10cm×10cm×10cm)을 개발하여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자·부품을 보드 및 모듈 단위로 최대 8U까지 탑재하여 우주 환경에서의 검증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우주검증위성 3호 탑재체는 2027년 예정인 누리호 6호기에 탑재되어 발사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모 사항은 우주청 및 항우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우주검증위성 2호 탑재체는 SK하이닉스의 DRAM과 UFS, (주)인세라솔루션의 고속·정밀 조정 거울, 모멘텀스페이스(주)의 반작용 휠, KAIST의 자세결정 및 시스템 모듈, 코스모비(주)의 전기추력기용 1A급 할로우음극, 인터그래미티 테크놀로지스의 궤도 수송선 항전 장비 테스트 베드 등이며, 올해 발사 예정인 누리호 5차를 활용하여 우주검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우주검증위성 1호*는 2025년 11월 27일(목) 누리호 4호기에 탑재되어 발사된 후, 12월 4일(목) 양방향 교신 성공했으며, 12월 18일(목) 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우주검증위성 1호 탑재체(8U): 삼성전자(DRAM, NAND), KAIST 혼합신호 집적회로 연구실 (AD/DA ASIC), (주)엠아이디(SRAM), 연합정밀(주)(D-서브 커넥터), 삼화콘덴서공업(주)(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래트론(주)(서미스터), 파루인쇄전자(주)(히터), 센서피아(주) (마그네틱스), 스마트전자(주)(레지스터), 시지트로닉스(주)(쇼트키 다이오드) 등 10개 기관

이효희 우주항공산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공모는 국산 소자·부품이 우주 환경에서 실제로 검증되고 사용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주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자·부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우주항공산업국	책임자	과 장	김정훈 (055-856-4350)
	우주항공산업기반과	담당자	주무관	문상수 (055-856-435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전자팀	담당자	책임연구원	권기호 (042-860-2922)

